



2005년 12월 19일

2006년 브리스톨 항공우주 설비시설 재개발 2 단계 추진

세계적인 동력 시스템 업체인 롤스-로이스 그룹은 브리스톨(Bristol) 소재의 방위 항공우주 설비시설 재개발 2 단계 사업을 신년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.

타이푼(Typhoon), 호크(Hawk) 및 JSF 항공기용 엔진 조립과 헬기 사업을 위한 엔진 조립을 위한 새로운 건물 건축 작업을 2006년 1월에 시작한다. 2 단계 사업에는 훈련 및 직원 헬스 시설 그리고 새로운 식당이 들어가는 신규 서비스 건물 건축이 포함된다.

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롤스-로이스 그룹은 현재 동부 작업장(East Works)을 비워 개별적 상용 개발에 활용하고, 패치웨이(Patchway) 지역의 모든 활동을 현대화된 건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.

2 단계 사업으로 올해 초 시작된 브리스톨 소재의 롤스-로이스의 7,500만 파운드 투자 프로그램이 완료된다. 새로운 터빈 및 구성품 서비스 공장을 위한 1 단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 방위 항공우주 부문의 토니 우드(Tony Wood) 상무는 2 단계 사업 결정 석상에서 “이번 사업은 롤스-로이스가 지난 40년 동안 브리스톨에서 수행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 사업 중 하나이며, 앞으로 이 신규 설비시설은 패치웨이(Patchway)에서 수행하는 롤스-로이스 활동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. 이번 투자를 성공적인 사례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현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.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작업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브리스톨의 산업기반을 가지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문의:

CPR 차유정 이사 02-739-7353 / junecha@icpr.co.kr
추윤희 팀장 02-739-7366 / katechoo@icpr.co.kr
박수진 02-739-7349 / sjpark@icpr.co.kr